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같잖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같잖다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같잖다

완성된 이름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같잖다

한눈에 보는 기록

뜻

하는 짓이나 꼴이 제격에 맞지 않고 눈꼴사납다.

요약 연대표

표기	20세기	미상	현재
갓잖다	☒	☐	☐
같잖다	☐	☐	☒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하는 짓이나 꼴이 제격에 맞지 않고 눈꼴사납다.

문헌의 첫 기록

20세기

수록 용례

7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6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갇잡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하는 짓이나 꼴이 제격에 맞지 않고 눈꼴사납다.



갇잡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갇잡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갇잡다 사전 표기 요약시기 미상 기록도 있음	—	—	—	—	—	● →
갇잡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
갇잡- 문헌 수록 표기시기 미상 기록도 있음	—	—	—	—	—	● →
갇잡- 문헌 수록 표기	—	—	—	—	—	● →
갇잡- 문헌 수록 표기	—	—	—	—	—	● →
갇잡- 문헌 수록 표기	—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갓잡다
20세기미상
- 갈잡다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4종

갓잡-, 갓잡-, 갓잔-, 갈잡-

↳ 갈잡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갈잡다’의 옛말인 ‘갓잡다’는 19세기경으로 추정되는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

↳ 말의 구성과 어원

‘갓잡-’은 ‘갓지’와 동사 ‘잡-’이 결합하여 줄어든 것으로, ‘갓지’는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이다 등을 뜻하는 형용사 ‘갈-’의 옛말인 ‘갓흐-’와 어미 ‘-지’가 결합한 ‘*갓흐지’에서 변화한 것이다.

⇒ 오늘의 형태로 이어진 과정

20세기에 ‘갈잡-’이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ㄴ 표기와 소리의 특징

이외에도 20세기에 나타나는 ‘갓잡-’은 ‘자’와 ‘ㅈ’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되어 표기가 섞여 쓰인 것이다. 또한 20세기에 제2음절 종성의 ‘ㅎ’이 탈락한 ‘갓잔-’이 나타나기도 한다.

📖 문헌 속의 갈잡다

전체 용례 7개

20세기 갓잔-, 갓잖-, 갓잖- 외 1종 용례 6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갓잔-, 갓잖-, 갓잖-, 갓잖-

📖 출처 1929 별건곤 제18호 117면

용례 01

66 문헌 용례

갓잔은 小說로 問題.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출처 1934 조선일보 10월 23일 3면

용례 02

66 문헌 용례

계집은 열 점 반, 정각에 사기가 그곳에 나타나지 안으면 그 갓잔흔 자존심을 손상 당하고.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출처 1938 조선일보 3월 29일 5면

용례 03

66 문헌 용례

고양이가 갓잔케 호랑이처럼 생겼다고 호랑이가 고양이를 만나면 이러케 한다는 것이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출처 1938 동아일보 10월 5일 3면

용례 04

66 문헌 용례

그러나 갓잔케 만드러진 말을 꾸며내는 것처럼 虛妄한 노릇은 없으리라.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출처 1938 동아일보 11월 21일 4면

용례 05

66 문헌 용례

하도 갓잔은 말이라 대답할 필요도 없다는 눈치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49 조선일보 7월 9일 2면

용례 06

66 문헌 용례

이놈이 갇잡게 힘꼴 민구 거센 체헌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상 갇잡-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갇잡-

출처 미상 규방가사 백발가 외 10편 110ㄱ

용례 07

66 문헌 용례

몇 푸는치 안된 남자 가소롭고 갇잔터라.

현대어 풀이

몇 푸어치 안된 남자가 가소롭고 갇잡더라.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갇잡다 관련 낱말

갇다

갇잡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갈잡다의 뜻과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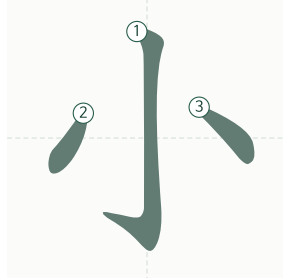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小

뜻·음 작을 소

총 3획 · 부수 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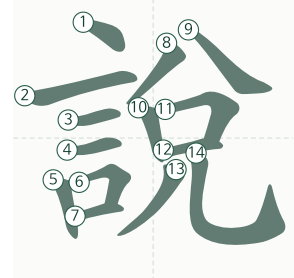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小/

說

뜻·음 말씀 설 / 달랠 세

총 14획 · 부수 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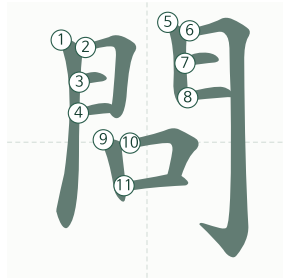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說/

問

뜻·음 물을 문

총 11획 · 부수 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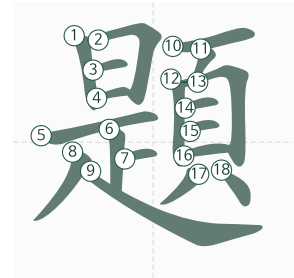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問/

題

뜻·음 제목 제

총 18획 · 부수 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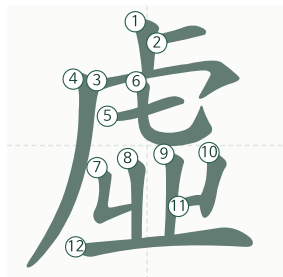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題/

虛

뜻·음 빌 허

총 12획 · 부수 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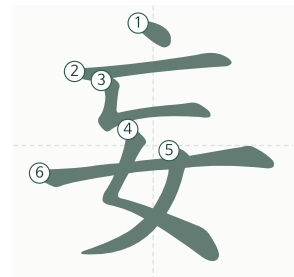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虛/

妄

뜻·음 망령될 망

총 6획 · 부수 女



hanja.wordrow.kr/한자/妄/